

# 영암 복지행정 그랜드슬램 달성 비결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영암군이 복지 행정분야에서 3년 연속 수상해 '그랜드슬램(grand slam)'을 달성했다. 영암군은 최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8 전국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종합부문 우수기관으로 최종 확정돼 6천만 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 실적이다.

인구가 7만여 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농촌 자치단체에서 삶의 질을 가늠하는 복지분야 최우수 행정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된 비결을 들여다봤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이 최우선=영암군은 민선 4기 들어 '다함께 잘 사는 선진 영암 건설'을 군정 구호로 정했다. 이는 군정의 모든 정책을 복지기관 확충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담은 것이다.

군은 우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그리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내밀었다.

- ✓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하라**
- ✓ **복지행정 영암군에서 배우게 하라**
- ✓ **항상 소외된 곳을 비춰라**

▲복지행정은 영암군을 배워라=영암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중인 사랑의 주택 지원사업(달뜨는 집)은 복지 행정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달뜨는 집의 입주자를 원하는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복지 우수 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11월이다. 붕괴 위험이 큰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happy-달 뜨는 집'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군서면 월곡리 1호점에는 4가구가, 최근 건립된 영암읍 역리 2호점에는 5가구가 입주했다.

▲소외된 곳을 비춰라=영암군은 8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경로당 무료급식과 함께 독거노인 575명에게는 생활지도사 25명을 파견했다. 독거노인들은 이들을 '아들 또는 딸'로 부른다.

또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노인

들을 위해 자치단체로는 흔치 않게 '왕인 성인문해(文解) 학교'도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첫 문을 연 이 학교는 군에서 양성한 52명의 문해교육 지도사들이 각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는 방법으로 한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모두 266명의 노인들이 한글을 깨우쳤다.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복지 정책도 눈에 띈다. 이주여성을 '약자'의 개념으로 보고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예로 영어권 이주여성을 고용한 영어학습 서비스는 이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민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따뜻하고 온정 넘치는 사회,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장성군은 지난 24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오는 11월1일 개막하는 '제 13회 백양단풍축제'를 비롯해 장성군 관광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날 홍보활동에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흥길동과 단풍요정이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장성군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정성근 제공)

## 왕인국화축제 만발 왕인박사 유적지서 19일간

'2008 영암 왕인국화축제'가 월출산을 배경으로 29일부터 19일간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열린다. 이번 왕인국화축제에는 꽃 벽, 국화 동물원, 분재국 등 농업기술센터가 3개월 이상 준비한 국화 7만여 점이 관광객을 맞는다.

입구에는 대형 꽃탑과 아치, 육국, 소국 등이 전시되고 주 전시관에는 팔각정, 동물 모형 작품, 분재국 산경 등이 자리를 잡았으며 동호회 출품작과 시화전 등도 마련됐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인 국화 동산도 준비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영랑 생가 오면 시집 무료로 드려요 강진군, 금관문화훈장 추서 기념 행사

강진군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강진을 영랑 생가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영랑시집을 무료 증정한다. 시집 무료 증정은 지난 18일 영랑 김윤식(金允植 1903-1950) 선생의 금관문화훈장 추서 등을 기념하고 그의 문학적 업적과 정신 등을 기리기 위해서다. 영랑 선생은 생전에 영랑시집(1935년)과 영랑시선(1949년) 등 2권을 출간했으며 이번 무료 증정 시집에는 이들 2권의 시집에 실린 시와 그동안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된 시가 망라돼 있다. 무료 증정은 외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평일은 오전, 오후 선착순 10명씩, 주말·휴일에는 각 20명씩이며 단체 관광객은 버스 1대당 10권씩 증정된다. 영랑 선생은 우리나라 대표적 서정시인이자 함일 민족 운동가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 85편의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 농업용수 확보 저수지 준설 나선다

## 농촌공 전남본부, 가뭄대비 173곳 준설 작업

최근 가을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저수지 준설 작업이 올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한국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봉조)는 27일 긴급 지사장 회의

를 소집,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저수지 준설사업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올 연말까지 전남지역본부 관리 1천38개 저수지 중 내년 영농에 필요한 용수확보가 가능

한 17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기술인력을 총동원해 조사측량 및 세부설계 등에 착수했다. 장봉조 전남지역본부장은 "저수지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487만톤의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저수지 바닥에 퇴적된 모래 등을 함께 제거해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성, 광주, 나주, 광주호 등 4개호를 포함한 전남지역 1천38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42%에 그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 1억원 들여 지은 화장실 '무용지물'

## 장흥 수인산성 공중화장실 오물처리 안돼 2년째 방치

1억원대 공사비를 들여 건립된 장흥 수인산성 공중화장실이 준공된 지 2년째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장흥군은 유치면 대리 수인산성 주차장 내에 지역개발사업비 1억1천400만원을 들여 2006년 12월 공

중 화장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수인산성 공중 화장실은 오물처리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까지 무용지물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채 유치면에 예산을 재배정한 뒤 사업발주가 이뤄져 의혹이 일고 있다.

또 탬 수변구역과 수원(물 자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화조 설계비 3천만원과 지하수 개발비 1천400만원 등 5천여 만원을 추가 편성해 예산낭비 논란도 일고 있다. 더욱이 준공이후에도 설비시공이 잘못돼 수차례 하자보수가 이뤄

졌으나 아직까지 부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공중 화장실을 방치해 오다가 수인산성을 찾는 이용객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뒷북 행정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을 맡은 S종합건설 측은 "설계에 따라 시공해 아무런 문제없이 준공검사까지 마쳤고 오히려 1천여만원이상 적자를 봤다"며 "별도의 하자 수리비는 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 "농촌마을 개발사업 선정해주세요"

## 함평 철성권역 주민들 직접 나서 공모 신청

농촌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 선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와 상옥·금곡 1리·강은 3리 등 철성권역 주민들은 지난 3월 자발적으로 철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관수)를 구성하고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주민교육 등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추진위원과 주민 등 40여 명이 밀양 평리마을, 하동 평사권역, 남원 혼남마을 등의 선진지를 견학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욕을 다졌다. 함평군도 전문가 등으로 마을개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문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는 의회와 재정투자 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한 사전작업도 마쳤다. 철성권역은 깨끗한 강변경관을 비

롯해 수려한 산림, 다랭이 논 등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권역 중심에 위치한 철성산에는 녹차 및 촌란 자생지, 친환경적인 자연생태자원과 측우기, 봉수대, 의병 항쟁터 등의 역사자원이 산재해 있다. 농림부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은 이달 말 공모신청서를 접수해 전남도와 중앙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말 사업 대상지가 선정된다. 오관수 위원장은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권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포도씨유, 인삼, 수박씨, 연꽃, 열매와 허브, 카이로, 녹차  
- 녹차, 인삼과 허브, 인삼  
- 생강, 카이로, 열매, 카이로, 녹차, 녹차, 녹차, 녹차  
- 인삼, 열매, 카이로, 열매  
- 인삼, 열매, 카이로, 열매, 카이로, 열매, 카이로, 열매  
- 인삼, 열매, 카이로, 열매, 카이로, 열매, 카이로, 열매

아연의 보충  
\*사모의약품(주) 02-791-9200